연중 제19주일

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주 강천면에 있는 '스승예수제자수녀원'에서 연례 피정을 하고 있습니다. 묵상과 성찰을 통해 새로워지도록 노력하며, 교우님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김준철 신부 드림

늘 깨어 있는 삶(루카 12,32-48)

오늘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삶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해지지 않는 돈주머니와 축나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마련하여라." 우리는 저마다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유하려고 엄청난 희생을 치르기도 합니다. 만일 소유욕 때문에 하느님과 나의 관계가 깨어진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지닌 지식이나 재능도 이웃을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재물도 가난한 이들을 위해 베풀어야 합니다. 이럴 때 하느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며,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이런 삶이 하늘에 보물을 마련하는 삶입니다.

이어 예수님께서는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 늘 깨어있으라고 당부하십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매고 등불을 켜 놓고 있어라." 복음에서 뜻하는 '주인이 돌아온다.'라는 구절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즉 재림하실 때를 가리킵니다. 좁은 의미로는 주님께서 인간 개개인을 당신 나라로 부르실 때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언제 어디서 하느님께 부름을 받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야, 가장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아마도 '나에게 주어진 일을 다 마쳤을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안에는 맺고 끊지 못한 일들이 수두룩합니다. 마음먹었는데도, 정작 시작하지도 못한 일, 반도 끝내지 못한 일, 결실 없이 어지럽게 벌여만 놓은 일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기에 나의 일을 다 마친 다음에 하느님을 뵙는다면, 참으로 나의 삶을 보람 있게 살았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두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수하여, 저는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요한 17,4). 우리도 마지막 순간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주님의 일 자체를 외면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막상 하겠다고 결단을 내려놓고는 게으름 피우거나, 미루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유혹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알고 있으면서도 미루는 것입니다. 갖은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이런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강하게 질책하십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게 오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불충실한 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하느님을 기쁨 속에서 뵐 수 있도록, 평소 준비를 착실히 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하느님을 의식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체험해야만 합니다. 일을 시작하거나 끝맺을 때뿐만 아니라, 기쁠 때나, 슬플 때, 속상하거나 화가 날 때마저도 주님께 기도하며 그분과 함께 어려움을 풀어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늘 성령 안에서 온갖 기도와 간구를 올려 간청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내를 다하고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깨어 있으십시오"(에페 6,18).

천주교 미사와 개신교 예배

미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재현하고 성체성사를 이루는 가톨릭교회의 제사입니다. 미사는 크게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말씀 전례는 독서와 복음, 강론, 신앙 고백, 보편 지향 기도로 이루어지고, 성찬 전례는 빵과 포도주의 봉헌, 감사 기도, 축성과 영성체로 이루어집니다.

가톨릭교회는 성찬례가 초대 교회부터 사도들이 예수님과 나눈 최후의 만찬을 재현하는 희생 제사라고 가르칩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1코린 11,23-24).

따라서 미사를 통해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시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공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이란, 과거의 사건을 단순히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지금 여기서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미사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바치신 십자가상의 제사를 되풀이하며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셨다고 주장합니다. 천주교처럼 성찬례에서 희생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대부분 개신교에서는 성체성사를 인정하지 않고 성찬례를 단순히 예수님의 최후 만찬을 기념하는 예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빵과 포도주의 실체 변화를 믿지 않고 성체는 그리스도 몸의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유로 개신교에서는 미사의 제사적 성격은 없어지고, 말씀 선포와 설교가 중심이 되는 예배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성공회의 경우 미사 형식과 용어가 가톨릭교회와 매우 비슷하지만, 성체의 실체 변화를 믿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톨릭교회의 성체 교리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